

제Ⅲ장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1. 주요 조사대상
2. 역사문화자원 변천사
3. 문화재 분포현황
4. 도시공간 변화

1. 주요 조사대상

-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서 웅진백제의 옛 역사를 보존해 온 도시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시에에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보존(preservation)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장소(공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 두 번째 방향은 문화자원을 보전(conservation)하는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과 전시관이다. 박물관은 시각예술영역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나, 역사유물 및 관련 물품을 보존·전시한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영역이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행사, 단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보전·전수하기 위한 전수시설 및 지방문화원 등도 이에 속한다.



【그림 III-1】 역사문화자원 조사 분석틀

2. 역사문화자원 변천사

1) 지명의 변천

- 공주 지명은 삼한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별 공간구조 및 생활상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삼한시대-불운국(不雲國), 감원비리국(監爰卑離國), 목지국(目支國)

- 공주 지역이 백제의 영토로 언제 편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공주 지역에 마한의 1개 국(國)이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삼한시대 공주는 마한의 불운국(不雲國) 또는 감원비리국(監爰卑離國)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과 목지국(目支國)을 월지국(月支局)으로 기재한 “삼국지” 판본에 따라 목지국(目支國)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 이를 통해 살펴 볼 때 당시의 공주는 발달한 농경문화와 토성을 축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공주 탄천면 장선리와 그 주변의 토실(土室)과 장방형 주거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백제시대-웅진(熊津)

- 한성 백제시대 공주는 곰나루, 고마나루, 구마나리 등의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워 지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웅천(熊川)으로 불리워졌다. “나루”라는 명칭은 나루터를, 곰 혹은 고마, 구마라는 명칭은 곰과 관련한 토탐신앙을 지닌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당시 공주는 금강 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성 백제시대가 끝나고 공주가 도읍지로 지정되면서 “웅진(熊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웅진이라는 이름은 금강가에 있는 나루터인 고마나루(곰나루)¹⁾

1) 옛날 이곳에 살던 한 사내가 하루는 인근에 있는 연미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고 배가 고파서 바위 굴 속에 쉬고 있던 중 한 처녀를 만났다. 사내는 처녀와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처녀는 사내가 자신의 정체가 곰이란 것을 눈치 챈 것을 알고 사내를 바위 굴 속에 가두어 놓았으며 사내는 암령과 사는 동안 자식까지 둘을 낳았다. 어느 날 암령이 없는 틈을 타서 사내는 도망을 나와 금강을 헤엄쳐 건넜다. 뒤늦게 이를 알고 쫓아 나온 암령이 멀리서 자식을 들어 보이며 마음을 돌리도록 호소하였지만 사내는 냉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암령은 어린 자식들을 안고 금강에 뛰어 들고 말았다. 그후 부터 금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풍랑에 뒤집히는 일이 많았으므로 나루 옆에 사당을 짓고 곰의 넋을 위로했다고 한다. 실제로 1972년 이 나루에서 돌로 새긴 곰상이 발견되고 그 자리에 곰사당인 웅신당을 지어 모시고 있다.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즉, 곰웅(熊), 나루진(津)의 뜻을 취한 것으로,²⁾ 현재의 공주(公州)란 이름은 신성한 땅, 강이란 의미의 ‘곰=熊-공(公) 또는 금(錦)’으로 바뀌어 ‘공주 또는 금강’이 된 것이다.³⁾

- 478년(삼국사기 2)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웅진시(熊津市)”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시(市)는 저잣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도시로서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2】 공주의 지명이 얹혀있는 고마나루 전경 모습

(3) 통일신라시대-웅주(熊州)

- 백제 이후 웅진부성, 웅진도독부로 불리웠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웅천주(熊川州)로 개칭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중국식으로 웅주(熊州)로 개칭되었다.
- 소경과 군, 현 등을 관장했던 주(州)는 행정 중심지로서, 당시 웅주가 웅진 백제 시대의 도시형태 또는 골격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고려시대 이후-공주(公州)

- 공주(公州)라는 명칭은 행정상 목(牧), 군(郡), 시(市)만 변화했을 뿐, 고려시대

2) 구마나리, 고마나루 등의 어원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3)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熊津洞)에 속하며 상류에 공주대교가 놓여 있어 현재 나룻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용비어천가>에는 고마, <일본서기>에는 구마나리(久麻那利)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이름 또한 ‘신성한 강’이란 의미에서 ‘곰’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940년(태조 23)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 공주(公州)에서 공(公)자에 대해, 조선 초기에 편찬된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공주의 진산인 “공산”모양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반면에 오늘날의 국어학자들은 “곰”에서 유래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 983년(성종 2)에 12목(牧) 중 하나가 되고, 이를 따라 중요시설들이 현재와 같은 웅진로와 공산성 인근에 배치되면서, 도시형태 및 골격이 점차 현재적인 형태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시대별 도시공간 변천사

- 공주의 도시공간은, 주변지역이 공산, 송산, 정지산, 봉황산, 일락산, 앵산 등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내부를 관류하는 금강에 의해 강남(구시가지)과 강북(신시가지)으로 구분되고 있다
- 공주 도시공간의 역사적 변천사는 구석기·청동기시대, 웅진백제시대, 통일신라-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현대 등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적, 사료 등을 통해 시대별 공간구조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석기·청동기 시대

- 구석기시대 유적인 석장리⁴⁾ 석기와 집터와 청동기 시대 호계리, 수촌리, 초봉리 고인돌 등의 유적 분포를 볼 때, 선사시대 공주의 구석기인들은 금강과 지류 주변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하며, 수렵·채집생활을 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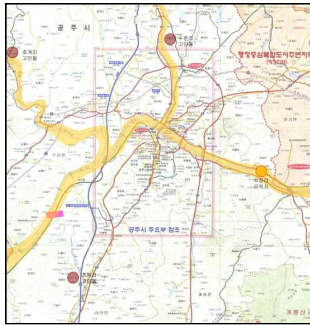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 특히,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평지의 집 자리는 구석기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청동기시대 유구로 볼 때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석장리 유적지는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구석기시대의 석기와 집터가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구석기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다.

5) 금강은 구석기인들의 생활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였다. 금강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유적들이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그림 III-3】 구석기-청동기시대의 공주



구석기인들이
생활하였던
움막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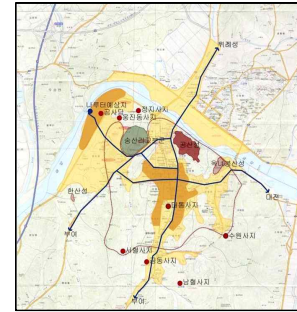


움막집
내에서의 생활
모습

- 한편, 청동기시대에 생활하였던 유구(주거지, 저장공)와 분묘(고인돌, 석관묘, 옹관묘 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공주와 금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거주하였다.

(2) 웅진 백제시대(475-538년)

- 공주가 역사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도시구조를 갖춘 시기는 문주왕 1년(475년) 고구려의 남하로 하남 위례성에서 공주지역으로 백제의 수도를 천도한 시기이다.
-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당시 공산성은 중요한 방어요새이자 왕이 머무는 곳이었으며, 고마나루 금강변 지역과 공산성-대통사지의 분지지역에 주요 취락지를 형성하였다. 유적의 분포로 볼 때 당시의 주요 가로망은 현대의 웅진로와 고마나루가 이어지는 무령로로 추정된다.
- 또한 산성으로서의 공산성 외에 옥녀봉산성, 한산성이 있었으며, 사찰로서는 터만 남아 있는 대통사지, 서혈사지, 금학동사지, 수원사지, 남혈사지, 정지사지 등이 있었다. 웅진 시대 고분군으로서의 송산리(무령왕릉), 교촌리, 웅진동 등에 분포하고 있어, 현재의 구시가지 일원이 웅진-백제시대 수도로서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III-4】 웅진시대의 공주



【그림 III-5】 백제시대 공주의 초기 장방형 주거지 모습

(3) 통일신라 - 고려시대

- 백제가 멸망한 후 공주(웅진)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다고 전해지며, 그 장소는 현재의 고마나루 일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는 공주(웅진)에 도독부(웅진주(熊川州))⁶⁾를 설치하여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고려태조 23년(서기 940년)에 공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설치하고, 고려 성종2년에는 전국12목 중 하나로 공주목이 설치되어 지방의 수부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현재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유적은 대부분 소실되어 당시의 도시구조를 유추할 수는 없지만, 웅진 백제시대에 형성된 도시골격 구조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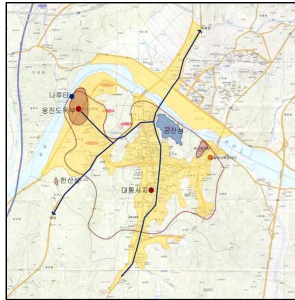
- 조선시대에 공주에는 충청감영⁷⁾이 설치되어 충청도 일원을 관할하는 기능을 하였다. 감영을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공산성을 방어의 기능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 도시의 주 골격은 현재의 웅진로와 무령로가 주요한 가로망으로서 기능을 하며 T자형 가로망을 형성하였다.

6) 통일신라시대 웅진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현덕왕 14년(822년)에 일어난 김현창의 난이다. 웅진주 도독이었던 그는 웅주를 근거지로 삼고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충청·전라·경상도의 일부까지 지배한 일이 있는데 그는 이곳 공산성을 근거지로 삼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패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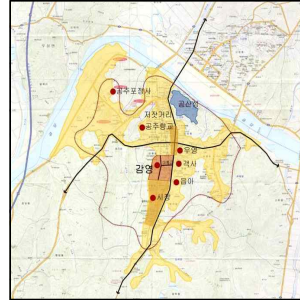
7)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국(1392년)한 후 지방행정은 감영 중심, 관찰사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조선시대의 공주는 고려 말 이래 목으로서의 정치를 지켜왔으며, 임진왜란이후에는 다시 감영소재지를 겸함으로써 호서지역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조 35년(1602년)에는 충주로부터 감영이 공주로 이전해옴으로써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감영의 공주 이전에 따라 충청도의 명칭은 『공충도』, 『공충도』, 『공충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우영, 객사, 공주목 등 부대시설 입지하였다.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 금강을 중심으로 웅진로와 강북으로 이어지는 축 상에 주민들의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공산성을 지나 도시에 들어오면 저자거리가 늘어있고 길을 따라 감영과 객사가 위치하며 그 뒤로는 시장과 취락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6】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공주



【그림 Ⅲ-7】 조선시대의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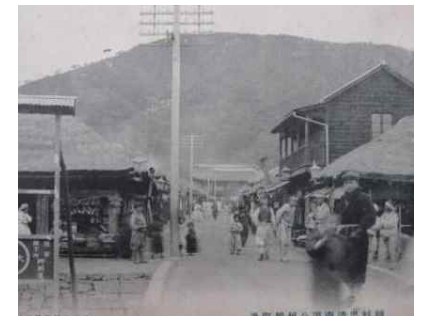
【그림 Ⅲ-8】 1900년 3월 공주 시가지 모습 (출처:교구청 문서고)

(5) 근대(일제강점기) - 현대

- 대한제국시대인 고종 23년에 제36호(1895년 발령)로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양분되면서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으로 개혁 공주군으로 개칭되었고, 공주부가 신설되어 충청남도의 수부로서 관찰사가 주재하면서 인근 27개군을 관할하였다.
-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도 공주는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 행정의 중심도시로 기능을 하게 되나, 한일합방 이전에 부설된 경부선 철도(1905년)가 대전을 통과하면서, 점차 중심지 역할이 대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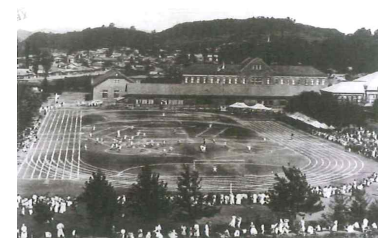


【그림 Ⅲ-9】 근대(일제강점기)-현대의 공주



【그림 Ⅲ-10】 1920년대 공주중심지

- 1930년 이후 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공립보통학교, 사립영명여자보통학교, 공주공립고등 보통학교, 공주공립고등여학교, 사립영명학교, 사립영명여학교, 공주청년 훈련소, 공주사립유치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 1일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과 동시 군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1읍 1면 213개리로 개편 조정되면서, 공주는 충청도의 교육·행정의 중심도시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Ⅲ-11】 1928년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운동회



【그림 Ⅲ-12】 1927년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그림 III-13】 1930년대 공주중심지



【그림 III-14】 1930년대 금강배다리

- 그러나, 1932년 도청소재지가 대전으로 이동하고, 강북쪽으로 공주대학교와 신시가지 조성⁸⁾됨에 따라 공주는 구도심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된다.



【그림 III-15】 1931년 도청 대전이전 반대시위 【그림 III-16】 1931년 영명여학당 통조림 제조

- 서기 1945년 해방 후에도 기존 행정구역이 존속하면서 교육·행정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1985. 12. 8)에 의거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되어 공주읍 법정동 23개동이 8개 행정동 58개동으로 조정되고, 공주군은 11개면 273개 행정리로 개편 조정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74호(1994. 8. 3)에 의하여 공주시·군이 통합하여 현재의 공주시로서 이어오고 있다.

8) 강북의 공주대학교 입지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며, 1982년 강북 신관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신시가지의 개발이 강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공주의 도시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3) 도시공간의 물리적 변화

- 공주의 도시공간은 웅진백제시대, 삼국시대~조선시대, 일제강점기, 1960년대 등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웅진백제시대에는 새로운 도읍지에 대한 물리적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단계로 현재의 도시공간 골격을 형성시킨 단계이며, 이후 시대는 지방행정 중심지로서 웅진백제시대의 도시공간 골격을 유지하며 이어오고 있었다.
- 특히 현대 도시의 모습이 점차 구성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와 인근 대전광역시로 행정 기능이 이전하면서 교육 및 생활 중심지로 변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다시 한번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 현대적 개념의 도시공간 형성은 1960년대 이후 실시된 공주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 공주도시계획구역은 1960년 1월 13일 15.627km²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초기에는 현재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1984년과 1985년 강남과 강북지역(신관지역) 도시계획 결정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오늘날의 공주도시지역이 확정되게 되었다.
-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의 변화를 통해, 공주는 최초 15.62km²에서 현재는 38.845km²에 이르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규모를 형성시키게 된다.

【표 III-1】 공주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결정년도	고시청	고시번호	내 용
1960. 1.13	내무부	제500호	최초 도시계획결정(15.62km ²)
1984.12.14	건설부	제522호	기정(강남)지역 도시계획 변경결정(13.19km ²)
1985. 4. 3	건설부	제132호	확장(강북신관)지역 도시계획 결정(9.08km ²)
1985.12.28	충청남도	제198호	도시계획 변경결정(공주도시제정비계획)
1986. 3.20	충청남도	제44호	도시제정비계획에 따른 지적고시
1993.12. .	건설부	제93-594호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38.845km ²)
1994. 8.12	건설부	제58410-1362호	공주도시기본계획 승인(76.414km ²)
1997. 4.19	충청남도	제1997-51호	도시계획(제정비)결정
1998. 9.15	건설부	제58410-1033호	공주도시기본계획 승인
2002. 3.11	충청남도	제2002-27호	공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로,광장,녹지,공원,유원지)
2003. 8. 9	충청남도	제2003-128호	공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로, 공원, 학교)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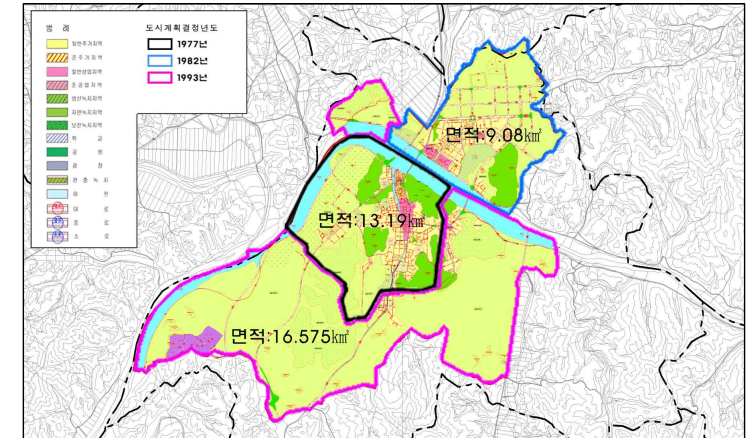
【그림 Ⅲ-17】 1960년대 공주시가지 전경



【그림 Ⅲ-18】 1960년대 공산성

【표 Ⅲ-2】 공주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9,437,60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4,730,228.0	12.0	
	제1종전용주거지역	85,726.0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0,937.0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934,584.4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90,299.7	0.7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348,680.9	0.9	
	소 계	420,652.0	1.1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360,374.0	0.9	
	근린상업지역	60,278.0	0.2	
공업 지역	유통상업지역	-	-	
	소 계	537,795.0	1.4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녹지 지역	준공업지역	537,795.0	1.4	
	소 계	33,748,929.0	85.5	
	보전녹지지역	6,523,878.0	16.5	
	생산녹지지역	95,948.0	0.2	
	자연녹지지역	27,129,103.0	68.8	



【그림 Ⅲ-19】 공주 도시계획구역 변천도

(1) 웅진백제시대 도시공간 형성

- 웅진백제시대는 고구려에 밀려 한성백제에서 공주로 천도한 시기로, 현재와 유사한 "T"자형 구조의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골격이 형성된 시기이다.
- 공산성과 현재의 공주고등학교를 잇는 웅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주거지, 저잣거리 등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시기이다.
- 또한 고마나루 추정지 등에 형성된 나룻터 등 외곽지역으로의 공간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유사한 도시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 현재의 공산성과 구시가지 중심의 도시화된 공간과 금강 북쪽의 자연발생적 마을 구조가 혼재되어 전체적인 도시공간은 구시가지로 한정되지만, 실제 웅진백제 당시의 도읍은 금강 북쪽으로도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 웅진백제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주는 도읍지에서 지방 행정 소재지로 위치가 격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공간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 웅진백제시대 공산성과 웅진로를 중심으로 한 형성된 도시공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공간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웅진로를 중심으로 한 내부공간으로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 이는 행정기능의 축소와 구 백제시대에 대한 부활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당시 통치자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공주는 웅진백제시대에 비해 축소된 상황에 직면한다.

(3) 일제강점기 시대(1918년 시가지 정비)

-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8년 수립된 시가지 정비 계획에 의해 공주 구시가지는 "T"자형 도로망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 조성되면서 점차 격자형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시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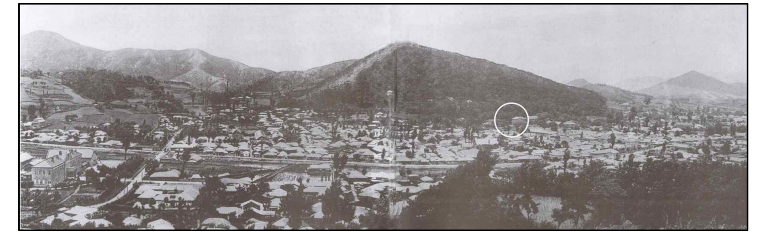
- "T"자형 도로망을 중심으로 충남도청(현 공주시대부고 자리)주변으로 관공서와 각종 도시기반 시설들을 배치하면서, 구시가지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조선시대에 비해 외연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구시가지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또한 이러한 "T"자형 구조의 중심이 되는 웅진로와 평행하여 충남도청(현 공주시대부고 자리)주변으로 봉황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구조와 시장 및 가로의 연장계획에 따라 공주산성시장은 현재의 공주시대부고 앞 거리에서 국고개 중동 사거리에 이르는 제민천 변으로 이동되었으며,⁹⁾ 이후 공주산성시장은 1930년대 들어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4) 일제강점기 시대(1930년 충청남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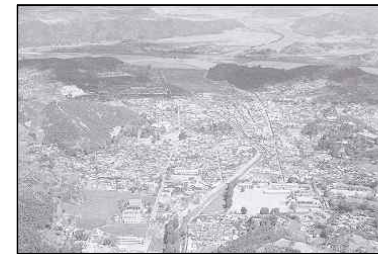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2년 충청도청이 인근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의 도시공간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 기존의 도시공간은 현재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밀집 형성되어졌으나, 충청도청이 이전되고 강북쪽에 형성되어 있던 취락지구가 점차 도시의 형태를 지니게 되면서 공주의 도시공간은 강북과 강남으로 양분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 강북지역의 개발과 도시화는 웅진백제시대의 공주가 지닌 외연적 공간적 범위 공주를 대부분 회복시키면서, 현재 공주의 도시공간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9) 이 시기에 미나리깡의 습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림 III-20】 일제강점기 시대 전경

(5) 근대 시대(1960년대 교육 및 생활도시 조성)



-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2년 충청도청이 인근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면서 공주는 기존의 행정도시에서, 교육 및 생활, 문화 도시로 변모하였다.

- 1933년 공주공립농림학교가 현공주시대부고 자리에 설치되고, 1938년 관립여자사범학교가 현재의 공주교육대학 자리에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다수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¹⁰⁾

- 1960년 최초의 도시계획결정(15.62km²)이 결정되고, 다수의 교육기관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웅진백제시대 이후 이어온 "T"자형 구조가 "격자형"구조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특히 웅진로와 봉황로를 중심으로 격자형 분산가도가 연결되면서 현재의 도시공간과 같은 물리적 구조를 형성시키게 된다.
- 공주 구도심의 내부 가로망이 격자형으로 형성되었으며 격자형 가로망 내의 필지체계는 블록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나, 제민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격자형 가로망의 외곽으로 구릉지 아래에 형성된 취락구조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따르는 불규칙한 필지체계를 이루고 있다.

(6) 현대 시대(1980년대 신시가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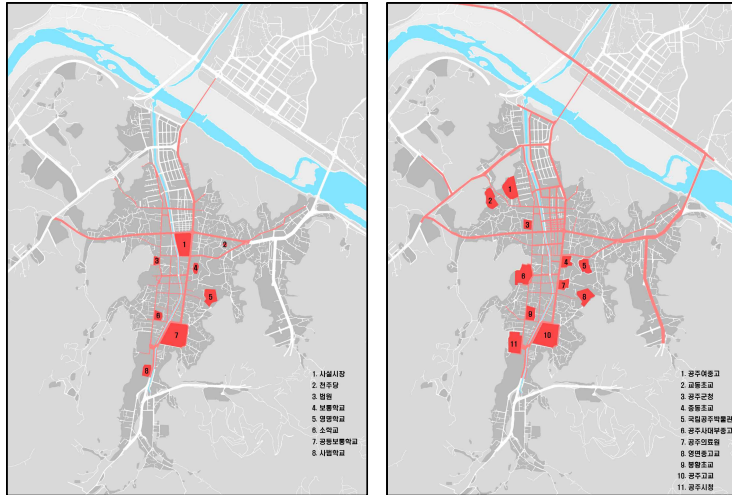
- 1984년과 1985년 건설부 고시 제522호와 제132호에 따라 강남지역 도시계획 변경결정(13.19km²)과 강북신관지역 도시계획 결정(9.08km²)이 이루어지면서, 공주는

10) 1962년에는 공주사범학교가 공주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72년에는 간호고등기술학교가 간호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이후 공주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현재와 같은 강남과 강북으로 양분된 도시구조를 확정하게 된다.

- 1930년대 이후 점차 도시적 모습과 규모를 형성시키고 있던 강북신관 지역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의 공주 모습이 완성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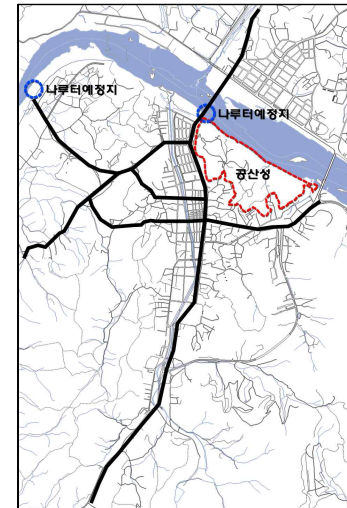
1918년 시가지 정비에 의해 형성된 도시조직

1960년대 이후 교육도시로의 발전

【그림 III-21】 공주시의 1910년대 교육 및 행정기관과 1960년대 교육 및 행정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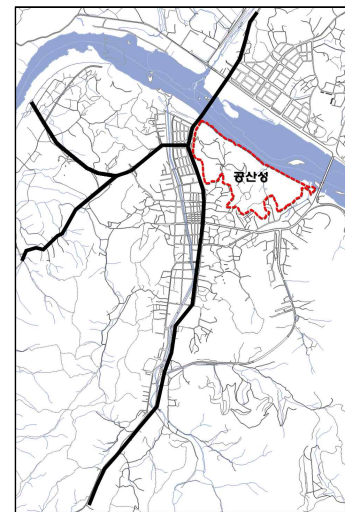
4) 도시 내 가로패턴 변화

- 공주의 도시 내 가로패턴은 웅진백제시대 이후 형성된 “T”자형 구조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 즉 공산성과 현재의 공주고등학교를 잇는 웅진로, 고마나루와 부여를 잇는 당시 대로를 가로망의 기본 골격으로 주변 주거지역과 저갓거리 등을 잇는 세로(細路)들이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연발생적 가지형으로 발달하였다.
- 이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T”자형 가로패턴은 유지되었으며, 다만 주변과 연계된 세로(細路)의 형상이 기존의 자연발생적 가지형태에서 격자형태로 변화하여 오고 있다.



(1) 웅진백제시대

- 웅진백제시대 강북지역은 소규모 취락이 분산배치되어 전반적인 도시 내 가로는 현재의 강남지역인 구시가지의 중심으로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강남지역인 구시가지의 가로는 공산성과 현재의 공주고등학교를 잇는 웅진로, 고마나루와 부여를 잇는 당시 대로를 큰 축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도읍지의 중심부를 잇는 도로로서 마차와 수레 등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폭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왕궁이 있던 공산성 앞 웅진로와 대로의 교차점은 당시 가로체계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현재의 장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 웅진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 내부 지역에 대한 핵심 연결로로 이용되었으며, 고마나루와 부여를 잇는 대로는 외곽에 입지한 나루터 등을 잇는 외곽도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웅진로와 대로를 중심으로 주변 주거지역과 저갓거리 등을 잇는 세로(細路)들이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연발생적 가지형으로 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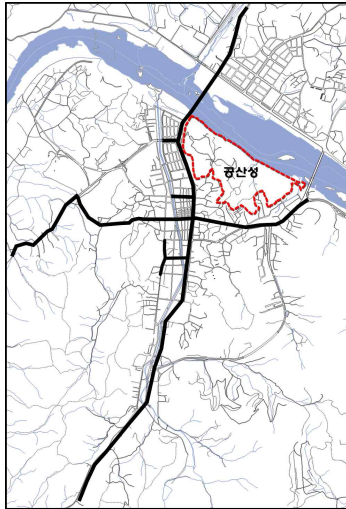


(2) 삼국시대~고려시대

- 웅진백제시대 이후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주는 구시가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 중심 행정소재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공주 구시가지의 가로망은 웅진백제시대의 “T”자형 가로골격을 유지하면서, 축소되는 도시 규모와 폭을 반영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즉 웅진백제시대는 도읍지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다양한 가로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에 반하여, 삼국시대~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행정기구가 입지한 구시가 지 지역 내부로의 가로망의 확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도면에서와 같이 웅진백제시대보다 이용되는 가로의 수가 축소되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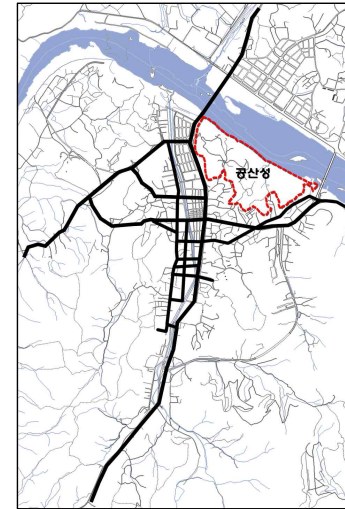
- 조선시대는 이전 고려시대에 비해 내부 가로 형성이 발달한 시대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 이전이 공산성 주변을 중심으로 웅진로와 큰길이 형성되어져 금강변으로 "T"자형 가로 골격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 이후에는 감영이 입지한 현재의 공주사대부고 인근을 중심으로 "+"자형 가로골격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도시 내부 가로망의 발달은 정주지가 외곽보다는 내부로의 집중성이 높아지면서, 공주의 도시 규모와 폭이 내부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시기부터 웅진로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었던 세로(細路)들이 감영과 객사, 읍아 등

관청시설과 시장, 저잣거리 등 상업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점차 직선화, 격자화되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세로(細路)들이 점차 직선화, 격자화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주거 지역 내부의 자연발생적 골목길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일제강점기 시대

- 일제강점기는 1918년 수립된 시가지 정비 계획에 의해 현재의 가로망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격자형 가로패턴을 지니게 되는 시기이다.
-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자연발생적 세로(細路)들이 체계적으로 직선화, 격자화되는 시대로 현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가로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웅진로와 더불어 제민천 서측 충청남도청 주변 남북방향으로 봉황로가 형성되었으며, 기존 세로(細路)들을 활용하여 웅진로와 봉황로를 잇는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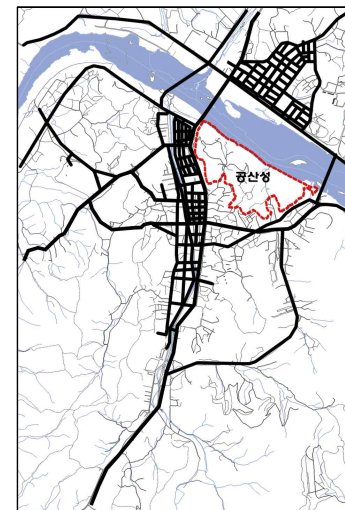


선화, 격자화된 가로는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 기존의 골목길, 산길 형태의 가로는 시가지 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웅진로와 유사한 수레와 차량 이동이 가능한 "도로"로 전환되는 시기로, 현재의 강남쪽 금강변 공주~대전 간 구도로도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구시가지의 격자형 가로패턴은 현재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웅진백제시대의 중심이었던 공산성 주변은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여전히 자연발생적 세로(細路)들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1932년 설치된 금강철교를 통해 기존에 양분되어 있던 공주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실제 연결시키는 가로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5) 근현대시대

- 1960년과 1984년, 1985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결정과 1993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공주의 가로패턴은 현재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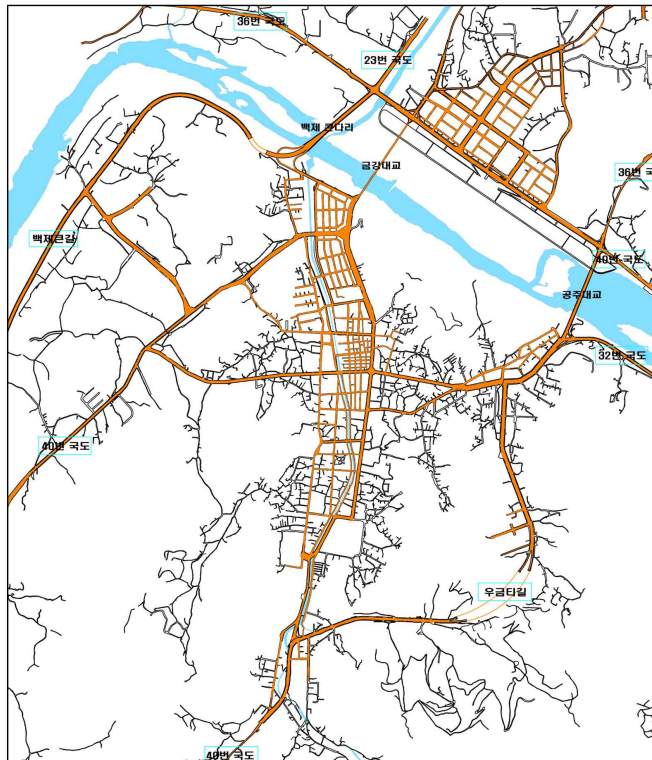


- 구시가지 가로패턴은 일제 강점기까지도 이어오던 자연발생적 세로(細路)들이 대부분 직선화된 격자형태를 변화하게 되었으며, 단순 취락지구 방치되던 공산성 주변도 격자형 가로 패턴을 형성시키고 있다.
- 반면에 신시가지의 가로패턴은 계획도시의 특성에 부합되는 격자형 가로패턴을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다.
- 또한 광역적으로 서울~공주를 잇는 23호선 국도(천안축)와 39호선 국도(아산축)가 연결되었으며, 서해안지역과 부여방면을 잇는 국도 39호선과 40호선이 각각 연결되었다.
- 또한 강남과 강북을 잇는 가로망이 금강철교로 단일화되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와는 달리 공주대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교, 백제큰다리 등 다양한 연계 도로가 형성되었다.

- 이를 통해, 공주의 도시 가로패턴은 남북축은 백제큰길, 웅진로 동서축은 유구로, 금벽로가 주 간선가로망으로 형성되었다.
- 이러한 주요 가로망이 구/신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거나 도심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단절 및 교통량의 집중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간선도로에 지구도로가 직접 접속되어 접근교통과 통과교통이 혼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왕복 2-4 차로로 교통용량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I-22】 2005년 기준 도로 현황

3. 문화재 분포현황

1) 개요

- 현재(2010년 1월1일) 공주 도시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에는 총77건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 65건, 비지정문화재 1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지역 내 동별로는 웅진동에 48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옥룡동, 신관동 각 8건, 중학동, 금학동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 공주시에 소재한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보의 상당수는 대부분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공공공간의 문화재라기보다는 물품중심의 단위문화재 성격이 강하며, 사적과 도지정기념물, 등록문화재 등에서 공공공간의 성격이 있는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공간의 성격을 지닌 문화재 중 사적으로서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우금치전적지, 정지산 유적 등이 있으며, 도지정 기념물에는 공주중동성당, 황새바위 천주교순교유적, 옥녀봉성, 신관리석실고분 등이 있고, 등록문화재로는 금강철교,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구 공주읍사무소, 공주제일교회가 지정되어 있다.
- 이중 구시가지에 인접하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로는, 공산성, 공주중동성당, 금강철교,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구 공주읍사무소, 공주제일교회, 우금치전적지 등이 있다.

【표 III-3】 공주 도시지역내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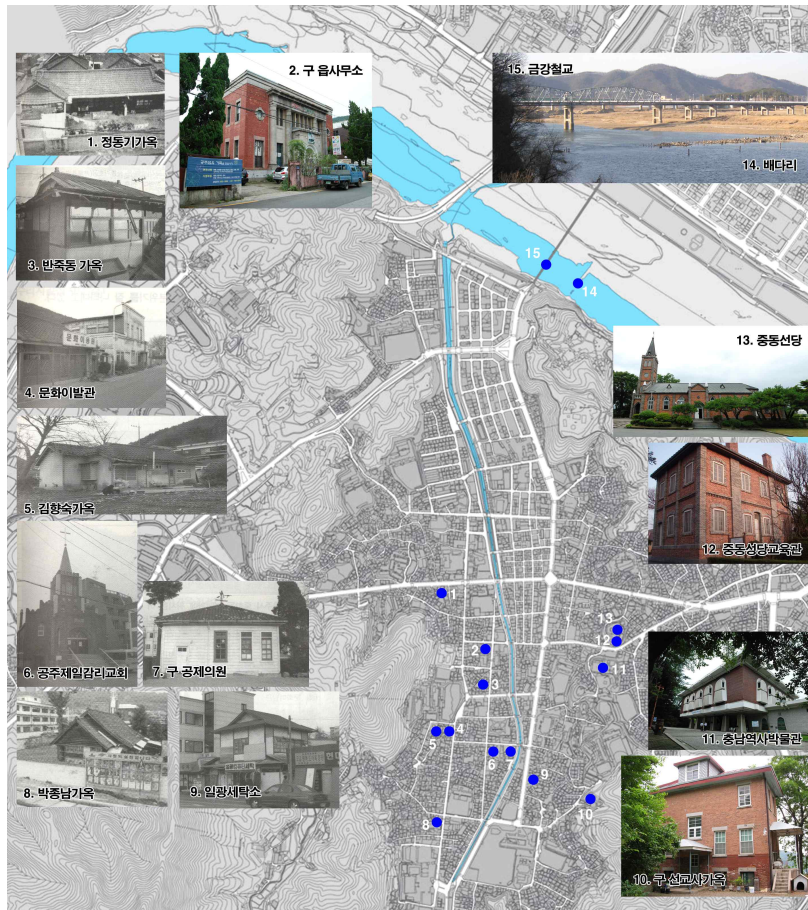
구분 읍·면·동	문화재 합계	지정 문화재 총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문화재 자 료	동 문 화 재	공주시 향토 문화 유적(1)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 자료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공주시 전체 합계	198	142	44	16	18	8	1	1	61	36	4	19	2	34	3	56	
공주도시 지역 내 문화재합계	77	65	25	14	6	4	1	1	25	13	1	10	1	11	3	12	
비율(%)	100.0	84.5	33.8	18.2	7.8	5.2	1.3	1.3	32.4	16.8	1.3	13.0	1.3	14.3	3.9	15.6	
중학동	7	6	1		1				3	2		1			2	1	
웅진동	48	42	23	14	5	3	1		12	9		3		6	1	6	
금학동	6	6	1			1			4		1	3		1			
옥룡동	8	5							3	1		2		2		3	
신관동	8	6						1	3	1		1	1	2		2	

자료 : 공주시 문화재 관리소 내부자료

11)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이란 문화재 보호법(지정주체별분류)에 의한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에 의거하여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이다.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 한편 공주시에는 지정문화재 이외에도 정동기가옥, 반중공가옥, 문화이발관, 김향숙가옥, 구 공제의원, 박종남가옥, 일광세탁소, 배다리 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래 문화재 및 공공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3】 공주 도시지역 내 근대건축물 분포도

2) 주요문화재 현황

(1) 공산성



여지도 상 공산성



현재 공산성

백제 정치의 중심에 있었으며, 백제멸망기에는 부흥운동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시 반란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신분상승을 외치는 민중의 저항지였다. 조선시대에는 국난의 극복처이자 정변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화과정에서도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 백제시대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공산성으로 조선 시대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 등 성문과 암문, 치성, 고대, 장대, 수구문 등 방어시설, 쌍수정, 영은사, 연지, 임류각지, 만하루지 등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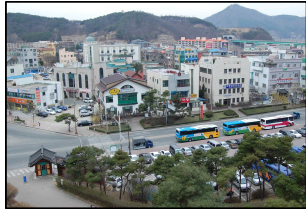
Ⅱ 공산성 이야기

- 공산성은 고구려에 밀린 백제가 자리잡은 곳이면서 백제 최후의 임금인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한 곳으로, 엄대암바위, 장군바위와 같은 패망한 백제의 슬픔과 새로운 세계에의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의 중심지로,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마을 탐방, 웅진골 체험, 수문교대식 등 백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그림 Ⅲ-24】 공산성 매표소



【그림 Ⅲ-25】 공산성 맞은편 상업지역

Ⅵ 주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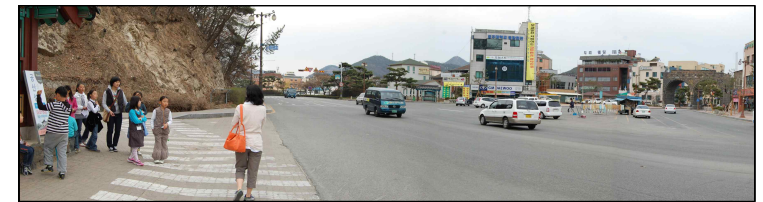
- 공산성은 웅진백제를 수호한 곳이면서 백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 공북루와 인근 나루터는 조선술을 통해 세계와 교류한 백제의 위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 이외에도 금서루, 만하루와 연지, 진남루, 임류각, 영동루, 성안마을 등 다양한 내부시설이 갖춰져 있다.
- 웅진로와 접한 외부공간에는 공주관광안내소와 매표소, 약 36면(소형 22면, 대형 14면)의 주차장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백제문화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관광지이자 주민의 생활·문화의 중심지로 행사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 공산성 북-동측으로 금강과 금강철교, 옥녀봉 등이 이어져 있으며, 남-서측으로 웅진동 신규 상업지구가 조성되어져, 사람들의 원활한 방문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Ⅵ 주변가로 현황

- 공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잇는 두 개의 큰 축 중 하나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 공산성은 지역중심가로인 폭 17m의 웅진로, 폭 13m의 왕릉로 교차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 신축지구로 격자형 도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주변지역과 공산성의 상호 유기적인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다.
- 그러나 진입도로 주변으로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적고 평소에도 많은 차량소통과 가로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도로와 보도의 혼재가 심하여, 보행을 통한 접근이나 이동은 어려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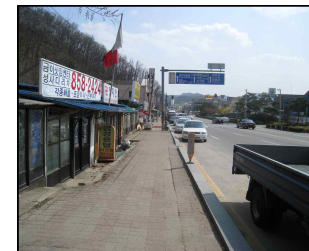
【그림 Ⅲ-26】 공산성 주변 진입도로 현황



【그림 Ⅲ-27】 공산성 정면 진입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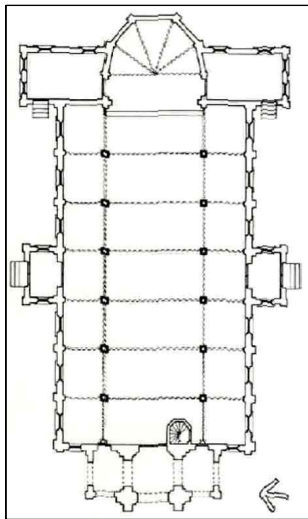
Ⅵ 이용패턴 현황

- 공주를 대표하는 역사관광지이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잇는 교통 거점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대형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단체관광객 수요가 많다.
- 주변이 신규 상업지구로 상시 거주하는 인구가 부족하고 특정시간 방문객이 많은 측면에서, 보행을 통한 접근보다는 차량을 통한 접근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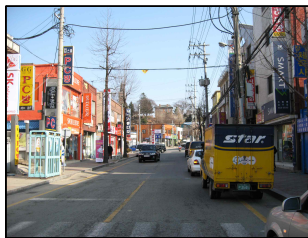


- 또한 공산성 앞쪽으로 무허가 상업건물이 난립하고 있어, 보행가로변의 경관을 저해하고는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이용객의 유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 연중 많은 차량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문화제 등이 개최될 때에는 이러한 방문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공주중동성당



지키기 위한 최조우 요한 신부의 순교 등 천주교 성지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보존되고 있다.



|| 공공유산 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중동 31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1, 2, 5, 12, 21)
- 입 장 료 : 무료
- 1936년 건립된 공주 최초의 현대식 건축으로 지어진 천주교 성당이다.
- 언덕 위에 자리한 고딕건축 양식 건물로, 1998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복원·관리되고 있다.
- 현재도 미사 등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공주중동성당 이야기

- 공주는 공주감영에서 순교한 신자만 248명에 이를 정도로 내포 천주교의 중심지로 역사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곳으로, 중동성당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1887~1888년 공주 공소, 1897년 5월 공주 본당으로부터 출발하였다.
- 공주 공소 설립 당시 공주를 내는 신자수가 20명에 불과하였으나 공주중동성당이 건립되면서 명실공히 내포 천주교의 중심지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에 의해 훼손되는 성전을

|| 주변시설 현황

- 공주중동성당은 중동에서 옥룡동으로 넘어가는 국고개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산지로 둘러싸여 있던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주변으로 공주중동초등학교, 공주영명중학교, 충남역사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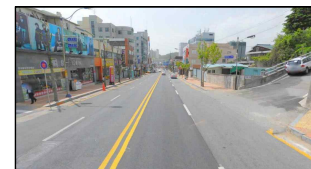
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웅진로 주변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국고개길을 따라 확장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와 상업지를 형성시키면서 다양한 시설과 기능이 복합된 결과로 추측된다.

- 최근 지어진 연립주택, 빌라 등이나 국고개 문화거리 주변 상업시설, 웅진로 주변 상업시설 등을 제외하고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시설은 60~70년대의 낙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주변가로 현황

- 웅진로와 교차하는 무령로(4차선), 국고개길(2차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도로에서의 접근은 보차 혼용의 마을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웅진로 쪽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웅진로와 무령로, 국고개길에 분기된 불규칙하고 폭이 좁은 마을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 폭이 좁은 불규칙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차가 혼재되거나 불법주정차, 불법 적치물들이 산재한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용패턴 현황

- 공주 구시가지의 중심부와 인접해 있어서, 항상 많은 차량 교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학교 사이를 이동하는 학생들,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를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의 보행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국고개 문화거리, 충남역사박물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이용객의 방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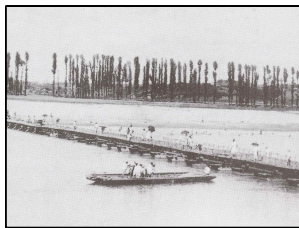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이동은 성당 외곽 도로변을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주거지에서는 고령화, 맞벌이 가족 증가로 인해 평소 성당 주변에서의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과 같은 내적 이용은 떨어지는 편이다.
- 내부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이나 경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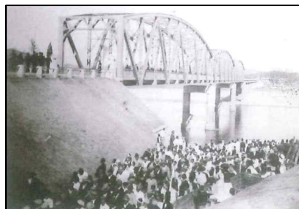
(3) 금강철교



1920년대 배다리



금강교 설치 전



금강교 준공식



현재 금강철교

|| 금강철교 이야기

- 금강철교는 옛날 경성과 목포를 잇는 1등 도로 구간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 공공유산 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 신관동 553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 입 장 료 : 무료
- 백제시대의 자료로 「삼국사기」 백제본기「東城王條」에 「12년설웅진교(十二年設熊津橋)」라는 다리에 대한 기록으로 추측해 볼 때 공주에 다리가 있었으나 정확한 위치가 곰나루 부근이었는지 혹은 공산성 공북루 부근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930년 공산성 공북루 근처에 배다리를 설치하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1932년 충청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때, 공주읍과 장지면을 연결하는 길이 513m, 폭 6.5m의 금강철교를 가설하였다.
- 당시 한강이남에서 가장 긴다리였던 금강철교는 전국 유일의 도로교(道路橋)이면서 와렌 트러스 구조의 아치 형태를 띤 교량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다.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자 남하하던 유엔군이 북한군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폭파되어 3분의 2 정도가 절단되었다.
- 국군이 서울을 탈환 수복한 후, 서울 홍화 공작소에서 교량의 원형을 복원하였으나 그 후 교량의 난간 등이 점차 노후화되었다.
- 2002년 공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노후화된 난간을 보수하였으며, 현재도 일방향 교통과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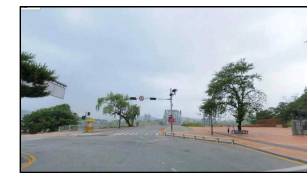


고 있던 공주읍과 장지면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로, 한국전쟁 당시 2/3가량이 파괴되었다가 1952년 복구되었다.



- 웅진백제의 상징적인 사자인 공산성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다리를 오며 가면서 전통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금강을 통해 시작되고 발전하고 번영할 공주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설물이다.
- 아름다운 야간조명, 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축제 등을 통해 공주의 명물 중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 주변시설 현황



- 공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잇는 시설물로, 주변으로는 공산성과 그 주변, 신관동 서측 상업지역이 연결되어 있다.
- 구시가지 방향으로, 금강철교와 연결되어 금강변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동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신시가지 방향으로 신관동 서측 상업지구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2~3층 규모의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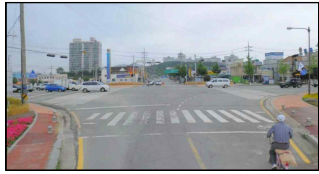


|| 주변가로 현황

- 금강철교와 접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모두 격자형 도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금강철교 자체는 1차로(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며, 좌우 보행로 설치)이지만, 웅진로와 의당로는 4차로이며 이와 교차하는 금강공원길은 3차로, 금벽로는 6차로로 조성되어, 차량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금강변을 따라 도로면에 폭 3~4m, 금강변에 폭 2~3m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 이동과 더불어 보행이동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Ⅵ 이용패턴 현황

- 금강철교는 교통시설로,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 상업 지역으로 진입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소에도 많은 차량 및 보행 교통이 발생하는 시설물이다.
- 또한 백제문화제 시기에 루미나리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통행이 일시 차단되면서 보행을 통해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 평소에는 차량과 보행이 공존하는 이용행태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보행 중심의 이용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4)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Ⅵ 공공유산 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20, 25)
- 입 장 료 : 무료
- 1921년 국인 선교사 샤프 목사가 설계하고 중국인 목수가 시공한 붉은 벽돌조 3층 규모의 건물이다.
-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영명학교가 시작된 교육시설이면서, 현재까지도 선교사들이 선교사업에 벌이고 있는 건물이다.



Ⅵ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이야기

- 공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서양식 주택건물로 감리교 소속 선교사 사택으로 활용되었으며, 일제시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종교적 선교 활동이 동시에 진행된 공간이면서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주택이면서 아름다운 모습과 위치로 인해 “언덕위의 붉은 집”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 최근에는 공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조망으로 인해, 많은 청춘남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애용되고 있다.

Ⅵ 주변시설 현황

- 주미산 북서측 자락에 위치한 구 선교사 가옥 주변으로는 금학초등학교, 영명중·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관련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있다.
- 웅진로에서 주미산 방향으로 완경사지에 조성된 주거지역은 연립건물이나 신규 조성된 건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후된 옛날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가로변으로 2층 이상 연립 및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이면에는 1층의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Ⅵ 주변가로 현황

- 구 선교사 가옥은 주미산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어, 대상지로 진입하는 폭 4m의 마을길이 유일한 진입로이다.
- 웅진로 건너편의 격자형 도로 패턴과 달리 자연발생적 마을이 지나는 불규칙한 마을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격자형 도로 패턴으로 변모하고 있다.
- 주거지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에도 차량과 인구 이동이 빈번한 편이며, 협소한 도로 폭(4~8m)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한 편이다.

Ⅵ 이용패턴 현황

- 비록 주거지와 근거리에 입지하였지만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지와 직접적인 연계나 활용은 어려운 편이지만, 선교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람과 차량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
- 공주를 대표하는 시설이지만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면서, 구 선교사 가옥에 대한 일반인의 유입과 활용은 미흡한 편이다.

(5) 구)읍사무소



Ⅵ 공공유산 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체국길 8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8, 20, 25, 100)
- 입 장 료 : 무료
- 1920년 준공된 벽돌조 2층 규모의 건물로, 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으로 사용되다 1930년부터 공주읍사무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소로 사용되었으며, 1986년 공주시 승격과 더불어 시청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현재는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도시 속 방치공간으로 남겨져 있던 곳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하고 있다.

Ⅵ 구)읍사무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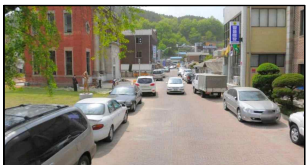
- 공주의 근대현사에 있어 항상 중심무대로 사용되어진 곳으로, 금융기관, 공주읍 사무소, 우체국, 임시시청을 거쳐 1999년 교압선미술학원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 백제의 역사고도로, 마치 “시간이 박제된 공주”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구시가지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이용시설이 있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다.
- 2010년 영국 작가 4명과 한국 건축가 김백선이 참여한 “일상의 행복”을 주제로 한 디자인 카페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Ⅶ 주변시설 현황

- 구)읍사무소 주변으로 대소서, 도장집 등이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일부만이 남아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존 시설은 철거되어 2~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으며, 일부는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 가로변으로 2~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그 이면으로 1층 규모의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삶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 인근으로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공주문화원, 음악공원, 성결교회 선교센터, 우체국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이 밀집하여, 과거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현재는 문화·생활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Ⅷ 주변가로 현황



태 가로패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 구)읍사무소는 무령로와 제민천, 웅진로를 잇는 우체국길과 대동북쪽이 교차하는 폭 6~7m의 보차혼용도로와 접해 있다.
- 구)읍사무소를 중심으로 격차형 도로 패턴과 인근 주거지로의 접근을 위한 불규칙한 마을길이 혼재된 형태



- 지역 간을 잇는 지역 간선도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Ⅷ 이용패턴 현황



- 주변의 다양한 시설들과 지역 간을 잇는 가로의 특성으로 인해, 평소에도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기별로는 주말에는 성결교회 선교센터를 찾는 종교 방문객이, 방학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원을 찾는 학생 방문객이 많다.



- 구)읍사무소 주변 시설이 특정 시기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대상지로의 일반인의 유입과 활용 수준은 미흡하며, 이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재가 유발되어져 인근 주거지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6) 공주제일교회

Ⅷ 공공유산 현황



- 위 치 : 충남 공주시 봉황동 10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20, 25, 100)
- 입 장 료 : 무료
- 1931년 건립되어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공주 선교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던 시설이다.
-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되었지만, 벽체, 굴뚝 등을 보존시키면서 전체 교회를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011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인근으로 신축 교회를 건립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기존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복

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공주제일교회 이야기

- 공주 선교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던 곳으로, 건축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인드글라스 개척자인 고 이남규 선생의 초기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벽면에 활용되어져 종교적 중요성과 더불어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 선교·교육적으로는, 1903년 공주에 파송된 의료선교사 맥길이 시작하고 샤프 선교사 부부가 열매를 맺은 선교·교육활동의 중심지로, 샤프 부인이 시작한 “명선여학교”와 후신인 “영명여학교”, 이후 윌리엄즈 선교사에 의해 월남 이상재, 조병옥 박사, 강신명 목사, 표용은 감독 등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중흥학교”와 후신인 “영명학교” 등의 선교·교육활동의 거점이었다.



-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교육의 중심으로, 종교적·역사적 중요성과 더불어 당시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명소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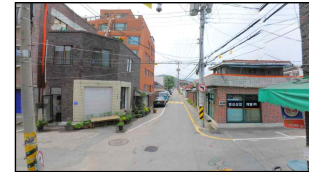
|| 주변시설 현황

- 공주제일교회는 주거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공주대사대부속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공주영명중·고등학교, 봉황초등학교, 공주중동초등학교 등 많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숙집, 자취방 등을 많이 운영되었다.
- 대부분의 주택이 오래되어 노후되고 규모도 1층으로 작은 편이지만, 과거 하숙집이나 자취방으로 사용되었거나 현재도 사용 중인 주택은 일부이지만 2층 이상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 교육시설에 의해 둘러싸인 중심부이면서, 일제시대 구락부(유도, 복싱 등 운동시설)가 운영되던 시설이 현) 중학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이면서 학생들의 중심 생활지역이었다.
- 또한 대전지법공주지원, KT&G와 같은 공공시설들이 현재도 입지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변가로 현황

- 무령로와 웅진로를 잇는 폭 5~6m의 체민1길과 대통1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보차혼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체민길과 대통길 등 일부 격자형 도로를 제외하고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마을길 가로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 불규칙한 마을길과 연결된 주택 진입로, 연계가로 등이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으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대부분의 도로가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불법 적치물들이 산재해 있어, 사람들의 보행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용패턴 현황

- 공주제일교회 주변의 대부분의 활동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맺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의 출퇴근, 이후 시간대의 유아들의 이동, 점심시간대의 학생이나 주부들의 이동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나 봉황초등학교에서 웅진로으로,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서 무령로로 이동하는 중심가로로 이용되고 있다.
- 인접한 반죽동당간지주가 학생들의 휴식·모임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하교 시간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의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

- 주거지 내 거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심 시간대의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편이다.



(7) 우금치전적지

|| 공공유산 현황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학동 327-2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20)
- 입장료 : 무료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 제2차 동학농민운동의 최대 격전지로 동학 농민군의 원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9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부여로 넘어가는 길목인 견준산 기슭에 조성되었으며, 동학농민군의 반제·반봉건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에서 제작한 조형물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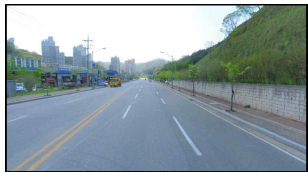


|| 우금치전적지 이야기

- 전봉준이 지휘하는 약 3만의 농민군은 1894년 제봉기한 후 당시 충청도 감영이 있던 공주를 공격하기 위하여 공주 점령의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우금치 고개로 진입하였으나, 일본군 200명을 포함한 약 2,500명의 관군에 의해 전멸한 불운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 무고하게 죽은 동학농민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위령제와 거리 예술제가 열리고 있어, 공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곳이다.

|| 주변시설 현황

- 우금치전적지는 금학동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견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산과 밭, 일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 인근으로 공주참노인병원, 상왕산 원효사 등 일부 집객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우금치전적지와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미흡한 편이다.
- 내부는 우금치전적비를 중심으로 장승과 조형물이 일부 설치된 개방형 광장 형태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편안한 관람과 휴식이 용이한 편이다.



|| 주변가로 현황

- 확폭 4차로의 우금티로의 우금티터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인도를 통해 도보로 약 10분(약 400m) 거리에 있다.
- 차량으로는 우금티사거리에서 우측 분기 소로(폭 5~6m)를 통해 내부에 조성된 임시 주차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반경 500m 이내 주거지나 기타 시설지구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선형가로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주거지로의 접근을 위한 불규칙한 마을길 패턴



을 보이고 있다.

- 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의 폭은 넓고 주변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차이동이 용이한 편이나, 인근 주거지 등의 접근로는 불규칙하고 폭이 좁아 보행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이용패턴 현황

-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우금치사적지 일원에서 쓰러져간 농민군들의 얼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우금치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 우금치전적비는 공주 외곽 견준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평일 혹은 주말에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차량 중심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 공주 이외에서의 대형버스를 통한 단체 관광객이나 인근 학교시설(공주여자고등학교 등)에서의 보행을 통한 접근 등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8) 고마나루

|| 공공유산 현황



곰나루 전경



곰나루 전경

(문주왕 1) 한양에서 천도하여, 538년(성왕 16) 다시 부여로 옮기기까지 백제의 도읍지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위 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금강변 일원
- 접근방법 : 도보, 차량, 버스(6, 7, 11, 21, 100)
- 입 장 료 : 무료
- 공주의 태동지로, 공주 지역 금강 일대와 연미산 무령왕릉 서쪽 낮은 구릉지대를 나타낸다.
- 이전에는 공주에서 청양, 예산 등 서쪽 방향으로 가거나 반대로 공주로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 공주의 옛 지명인 고마나루는 금강변 나루 일대로, 곰나루라고도 불리우며, “고마(固麻)”는 곰의 옛말이며 한자로는 “웅진(熊津)”을 뜻하는 것으로, 475년

Ⅵ 고마나루 이야기



- 고마나루는 공주시 웅진동에서 맞은편 우성면 도천리를 연결하던 나루터로, 백제 역사의 중심무대로 특히 곶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며, 현재도 금강에 제사를 올리던 웅진단(熊津壇)터와 연미산 중턱의 곶굴, 나루터 인근의 곶사당이 현존하고 있다.

- 또한 금강과 곶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득한 옛날 연미산에 살던 암곰(고마냥자)과 나무꾼 사이의 슬픈 사랑이야기¹²⁾가 펼쳐진 곳이다.
- 곶과 사람의 슬픈 사랑이야기와 더불어 금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솔밭, 나루 북쪽의 연미산과 더불어 아름답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으로, 공주땅을 밟는 사람들 특히 연인들이 꼭 들러봐야 할 곳이다.
- 최근에는 고마나루 축제가 개최되어 고마나루가 지닌 역사성과 이야기의 즐거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Ⅶ 주변시설 현황



- 고마나루는 연미산과 금강변에 위치하여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고마나루(곶나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을 통해 곶나루 국민관광단지, 고마복합예술센터(2012년 12월 예정), 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등이 들어서고 있다.

- 또한 솔밭과 넓은 백사장 등이 펼쳐져 있어 뛰어난 경관적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어, 비록 주거지나 기타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Ⅷ 주변가로 현황

- 도심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현재도 웅진동과 우성면을 잇는 도로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주변으로 확폭 4차로의 백제큰길이 지나고 있다.
- 폭 1~3m의 인도가 백제큰길 좌우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12) 옛날에 약초를 캐는 남자가 수목이 많이 있는 지금의 연미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다가 큰 암곰을 만나서 몸이 사로잡힌 바 되어 곶과 같이 굴속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암곰은 새끼를 낳았다. 이후 암곰이 방심한 틈을 타 남자는 강물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암곰이 새끼를 먼저 물에 던지고, 제 몸도 물에 빠져 죽었다.



편이지만, 주변으로 보행을 유도하거나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차량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만 차량 접근을 위한 도로 및 주차시설 등은 잘 갖춰져 있다.

- 주변으로 정비된 주거지가 미흡하여 불규칙하고 자연 발생적인 소리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 고마나루 문화

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고마나루길이 조성되면서 일부 규칙적인 도로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Ⅸ 이용패턴 현황



- 백제문화제나 고마나루 축제 기간에는 많은 관람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의 방문으로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하다.

- 그러나 백제문화제나 고마나루 축제를 제외한 평일에는 산책이나 일부 관광객을 제외한 방문이나 이용이 미흡한 편이다.

4. 도시공간 변화

- 도시로서의 공주의 많은 시설과 공간들은 도시 및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공간으로, 도시 일부이면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공공공간으로는 상업공간, 행정공간, 교육공간, 거주공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들과 도시 속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공주의 공간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업공간

- 공주는 웅진백제시대 이후 현재의 전라도와 경기도, 한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이면서 행정과 주거, 특히 상업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웅진백제시대에는 해상제국 백제의 도읍지로 금강 수계를 이용한 해상무역과 전라도와 한성을 잇는 육상무역 목적지이면서 중심지로 이용되면서, 웅진로와 무령로를 중심으로 “웅진시(熊津市)”같은 상업공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충청도 이북 현재의 서울로 수도가 정해진 고려시대 이후, 공주는 금강 수계의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해상무역이나 해상 조운로로 활용성이 저하되기는 하였지만, 지리적 중요성과 행정소재지로서의 중심성으로 인해 전라도와 한성을 잇는 육상무역의 중심지·중계지로 지속적으로 인식되면서 육상교통로를 통한 물자의 이동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충청도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적·물적 집산지이면서 상업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웅진백제시대 “웅진시(熊津市)”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공주 오일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상업적 행태가 이러한 정기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공주의 상업적 중심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림 III-28】 시대별 조운로

- 공주의 상업공간은 과거의 저잣거리와 장터(웅진시(熊津市))에서 발전하여, 현재는 전통시장과 신관동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조정되어 왔으며, 이는 웅진백제시대 이후 각 시대별 도시공간과 가로패턴의 변화와 함께 개척공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웅진백제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공산성과 고마나루, 웅진로가 행정과 교류의 중심이었다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행사와 제례의 중심으로 이용되어져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었을 것이기에, 공산성 앞에서 웅진로를 따라 남측(현 공산성 삼거리~중동 네거리) 가로변으로 저잣거리와 장터가 형성되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시대에는 행정시설이 구시가지 내부로 이전함에 따라 사람들 활동 중심지도 내부로 일부 이전하게 되었으며, 기존 상업중심지로서의 중동 네거리 인근과 인근 부여 등과의 교류의 거점이 된 현재의 봉황초등학교 인근으로 양분되어 저잣거리와 장터 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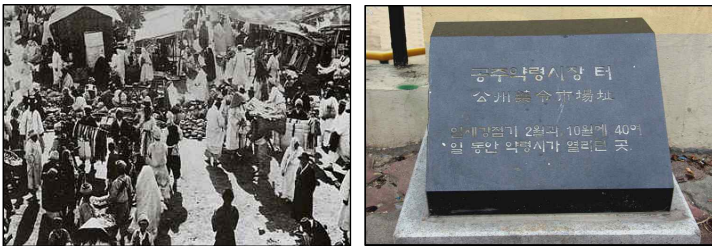
해안가 저잣거리 및 장터

- 웅진백제시대 이후 이어온 상업공간은 공주의 역사적 위상 변화와 함께 발생한 도시공간구조 변화, 교통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입지적으로는 기존의 공산성과 중동네거리 구간의 저잣거리와 장터가 점차 남측(중동 네거리인근, 현 봉황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게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되었으며, 규모적으로도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도 기존의 노점 중심의 장터에서 좌판 및 상점 중심의 초기단계의 상점형태의 공간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특히 현 봉황초등학교 인근으로는 1700년대부터 공주약령시(公州藥令市)¹³⁾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주변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통환경과 충청도 행정소재지로의 집중성 등으로 인해 전주약령시를 제치고 충청도·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권으로 성장·발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주약령시는 일제강점기까지 기존 중동 네거리 인근 저잣거리 및 장터 등과 더불어 공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Ⅲ-29】 공주약령시

- 웅진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주의 상업공간은 상설적인 개념보다는 정기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당시의 상업활동이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할 역량이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치와 제례 등과 연계되어 비상설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상품생산의 소량화, 계절적·지역적 한정성 등으로 인해 보부상 등을 통해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일제 강점기에는 구시가지 중동 네거리 인근과 국고개에 현대적 상점가(현 중동 상점가)가 형성되었으며, 현 중동 네거리와 공주고등학교 인근 제민천변으로 사설시장(공주면 147번지)¹⁴⁾과 5일장인 “오거리장”이 개최되어 운영되었다.
- 이러한 상권 중심지의 이동은 삼국시대 이후 이어온 공주 구시가지 내 행정 중심지가 제민천 서부를 중심으로 변경되고, 교통 패턴이 현대적 수단(자전거, 차량

13) 원래 감영 소재지로 모이는 약재 중에서 국가가 구입한 뒤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는 장터로서,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 한번에 약 40~50일 간 개최되는 “공주약령시(公州藥令市)”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재를 전문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었다. 1700년대 경부터 이루어졌으나 대한제국시대 이후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일시 부활하였다.

14) 공주 사설시장은 일제강점기 공주 감부 김갑순(金甲淳)의 투자와 1918년 공주시가지 정비계획과 연계되어 제민천변 “미나리깡”을 매입하여 점포 200개를 보유한 대규모 상설시장으로 개최되었다.

등)으로 변화하고, 주요 이용대상이 되는 주부와 학생들의 생활지역이 행정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게 되면서, 생활권이 기존 가로변에서 가로 이면 지역으로 확산되고 주부나 학생들의 이용과 인지가 편리한 가로변으로 상업시설이 입지하게 되며 상시적 이용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풍의 점포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30】 공주 시가지

- 일제강점기 이후 강북지역의 개발이 시작된 근현대시대의 상업공간은, 한국적 상업공간의 태동이 이루어진 시기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상점가와는 전통적 장터가 현대적 집단시설지구 개념의 전통시장으로 발달하게 된다.
- 상점가 형태에서는 기존의 중동 네거리 중심의 상점가가 중동성당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설시장(공주면 147번지)이 현재의 산성동과 금성동 일대의 도시블럭 전체에 집단적으로 이관·조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현재도 지속되어 공주산성시장, 툇방시장 등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31】 산성시장

【그림 Ⅲ-32】 툇방시장

- 또한 전통시장 주변으로 1980년대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입지하여 사람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상행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시외버스 터미널이 신관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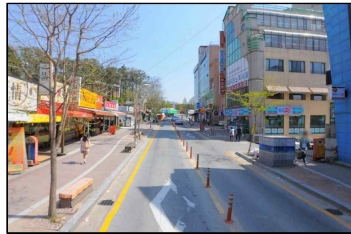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이전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시내버스 터미널이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면서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성장발전하고 있다.

- 신시가지의 상업지역은 1960년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신관지역의 가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계획이 수립된 1980년대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III-33】신관동 신상점가



【그림 III-34】공주대학교 후문 신상점가

- 공주에 입지한 상업공간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상권의 규모가 광역적이라는 것, 둘째는 상행위의 대상이 특수하다는 것이다.
- 첫째, 상권의 규모가 광역적이라는 것은 공주가 충청권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 주변 지역에서의 다양한 물산이 집적되고 다시 유통되는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상업기능이나 공간이 매우 광범위했다는 것이다.
- 둘째, 상행위의 대상이 특수했다는 것은, 웅진백제시대는 도읍지로 왕과 대신, 주민들의 이용이 이루어졌으며, 공주약령시 시절에는 한성에 조성된 육의전과 마찬가지로의 지역 내 유일한 전문상권으로서 기능하였다는 점, 행정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상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행정도시로서의 공주는 충남도청이 소재했을 정도로 많은 행정시설이 웅진로와 봉황로, 무령로를 중심으로 분포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점포가 주변으로 입점하게 되었다.
- 특히, 봉황로는 이면도로로 상점 등 상업공간조성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웅진로와 더불어 많은 식당과 관련 점포가 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행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주는 교육도시로 많은 교육시설이 분포하게 되었고 이들에 입학하기 위한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면서 주거지역이 이러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과밀하게 되고 많은 하숙촌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소비자도 대두되게 되었으며,



분식점 및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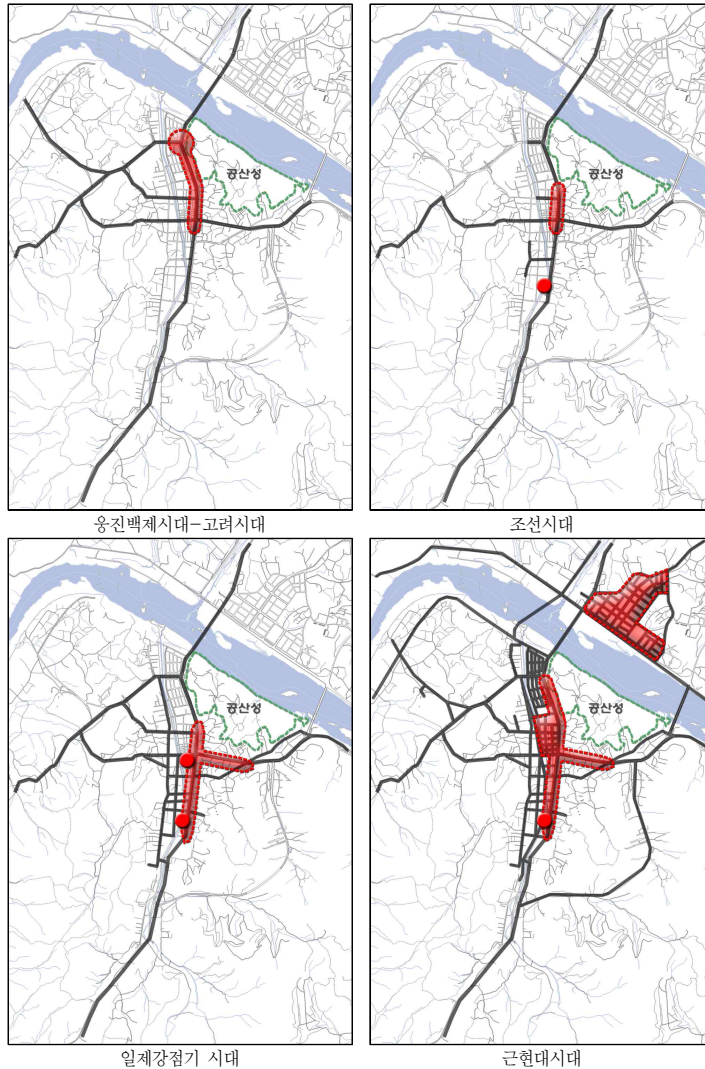
이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분식점, 학원, 문구사, 책방 등)이 동반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점은 현재도 웅진로와 무령로 주변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 이후 교통발달과 공주사대부고 기숙사 확대, 아파트·연립주택 확산 등으로 인해 구시가지 내 기존 하숙촌이 많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학생 대상 상권은 많이 위축되는 듯 하였으나, 신관동 지역으로 공주대학교 개교 및 활성화되면서 공주대학교 후문 공주대학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주 지역 내 학생 대상 상점과 관련시설(문구사, 오락실, 커피숍, 식당 등)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이밖에도 다양한 할인점, SSM 형태를 지닌 현대적 유통업체가 교통 집적지를 중심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상권을 급속하게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I-35】할인점 및 SSM



【그림 III-36】 시대별 중심상권

2) 행정공간



공산성 조감도



조선시대 공주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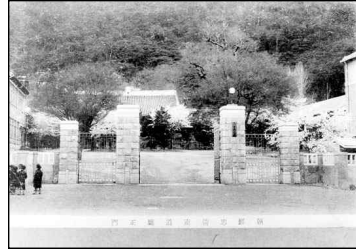


충청관찰부 정문(포정사)

- 공주는 웅진백제시대 이후 충청지역의 행정 소재지로, 일제강점기 이후 대전광역시로 충남도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웅진백제시대에는 백제의 도읍지로,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충청도 지역의 행정 소재지로 역할하여 왔다.
- 웅진백제시대에는 해상제국 백제의 도읍지로, 방어적 개념과 해상교류 거점으로 금강변에 입지한 공산성에 왕궁시설이 입지하였으며, 관련 행정기관이 왕궁과 교류가 원활한 웅진로 주변으로 분산배치 되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백제 도읍지로 새로운 행정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산성과 웅진로 주변 행정시설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통일에 있어 외세(당나라)의 힘을 빌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고마나루터 인근에 웅진도독부가 추가로 입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조선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어적 개념이 아닌 지역 통치의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이면서, 현 구시가지의 정주지 확대 조성, 한성과의 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구시가지의 중심성이 강조되면서, 충청감영이 현 공주사대부고 인근으로 입지하고 공주목 시설이 중앙(영산) 공원 인근(의료원 및 중동초등학교 부근)으로 관련 시설(우영, 객사, 읍아 등)이 웅진로 주변으로 조성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전라도 지역과 한성의 연결 거점으로서 웅진로의 활용성이 향상되면서, 파발 등을 위한 객사가 기존 감영자리가 아닌 웅진로 주변으로 분산 조성되어 하나의 행정타운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 행정기능이 확대 재편되는 시기로, 기존에 형성된 행정타운이 제민천 서측 남북으로 확대되어 현 공주사대부고 자리에 충남도청이 입지하고 인근으로 공주군을 담당하는 지방 행정기구로서의 군청과 관련 시설(대소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서, 형무소, 등기소, 지방법원,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들이 현 무령로 주변으로 분산 배치되어 지역 중심의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III-37】 옛 충남도청



【그림 III-38】 구읍사무소



【그림 III-39】 구읍사무소 주변 대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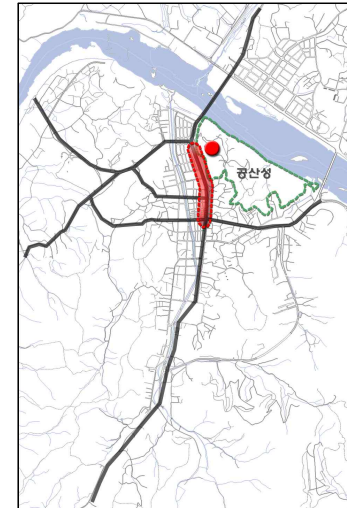
현 공주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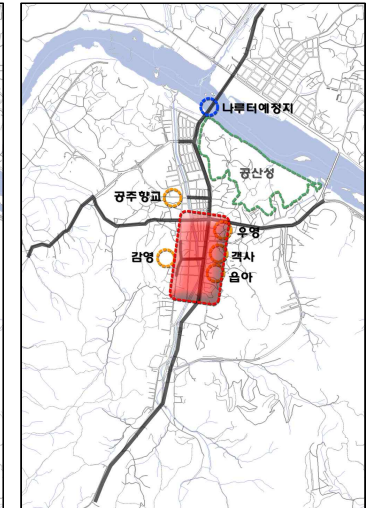
중학동 주민자치센터

- 1914년 군면폐합(행정구역 축소),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면서 공주는 충청도의 행정소재지가 아닌 지역 단위 행정중심지로 역할하게 된다.
- 충남도청 이전은 관련시설들의 폐합 또는 축소를 유발시켜 기존 행정타운을 일부 축소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공주가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되면서 행정기능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이러한 역기능은 부분적인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 1986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공주군으로 분리되고, 1995년 공주군과 공주시로 통합되어 공주시가 태동하면서 현재의 공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기존에 분산된 행정기능이 공주시청 신축으로 통합되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하 행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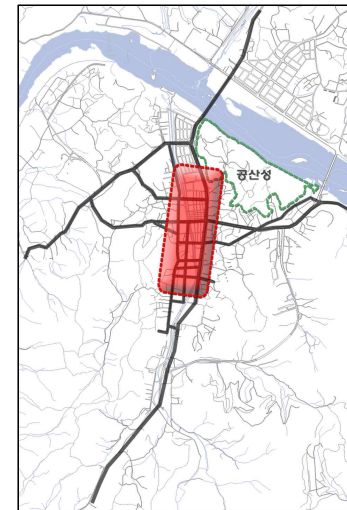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등)들도 통합 운영되면서, 기존과 같은 블록단위의 행정타운이 아닌 거점 단위의 행정소재지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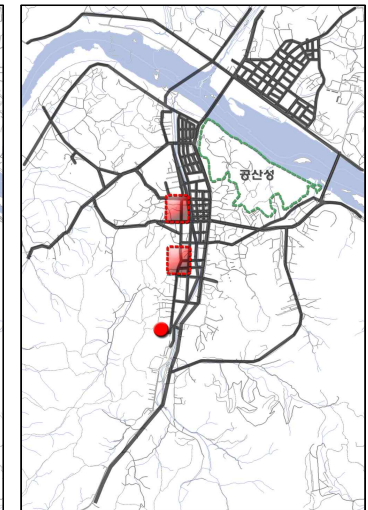
【그림 III-40】 용진백제시대-고려시대



【그림 III-41】 조선시대



【그림 III-42】 일제강점기 시대



【그림 III-43】 근현대시대

3) 교육공간

- 공주라고 하면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게 된다. 이것은 삼국시대 문화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백제의 수도 이면서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사람들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시설과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개화기 이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공주는 충남·대전지역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 교육시설이 도입되어져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갖추었으며, 현재도 지역인구의 30%가 넘는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다.



오경박사 단양이 중류가옥(부여 백제문화단지)

- 웅진백제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한 문헌은 남아 있지 않으나, 백제시대에는 고구려와 중국의 교육사상과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박사(博士) 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기관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웅진백제시대인 513년(25대 무령왕 13년)에 오경박사 단양이를 일본에 보낸 바가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박사(博士)제도를 담당한 기관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위치는 공산성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제의 옛 도읍지에 대한 정치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747년(경덕왕 6년)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의하면, 각 주에 조교(助教)를 두는 주학(州學)의 성립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주에 한서의(韓愼意)를 조교로 파견했다는 기록을 보아, 공주에도 관련시설이 입지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유교가 함께 중시되었는데, 불교는 개인의 수신지교(修身之敎)가 존중되었으며, 유교는 치국의 학으로서 존중되었다. 따라서, 불교와 유교가 고려의 교육에 함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의 지방도시 교육은 관학(官學)기관인 향교와 사학(私學)기관인 서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172년(인종 5년)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향교는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800년 동안 중단없이 중등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공주에는 신평면 지역에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당은 마을 거리마다 성황리에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향교와 서원¹⁵⁾, 서당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고려시대 신평면에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는 존속여부를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설치된 향교는 공주시 교동 211번지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원은 현 구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설치·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당은 조선시대에도 마을 곳곳에 설치·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III-44】 공주향교



【그림 III-45】 명탄서원

-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기관은 조선시대 조성된 일부 향교 및 서원시설을 제외하고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교육기관이 국학 개념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왕궁이 입지한 공산성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웅진로를 중심으로 현재의 구시가지 내부에 입지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조선시대 이후의 교육시설은 국학개념이 사라지고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대형화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 즉 도시 외곽이나 도시 내부 궁터 지역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1894 갑오개혁 이후 등장한 근대교육시설은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 설립·운영된 공주사립소학교(1898), 명선여학당(1905), 공립공주보통학교(1906), 영명남학당(1906)이 있으며, 이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적으로나 시설적으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5) 조선시대 공주 지역에는 공주향교와 사학 교육 기관인 용문서원, 충현서원, 명탄서원, 부용당영당(芙蓉堂影堂), 문회당, 요당서사(寥塘書社), 돈파(豚坡)서사, 기호(岐湖)서사, 병엄(屏嚴)서사, 운산(雲山)서사, 성봉(盛峰)서사, 금호(錦湖)서사 등이 있었다.

Ⅲ.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그림 Ⅲ-46】 공주공립보통학교



【그림 Ⅲ-47】 영명학당

- 1930년 이후 공립심상고등소학교, 사립영명여자보통학교,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공주공립고등여학교, 사립영명학교, 사립영명여자학교, 공주청년훈련소, 공주사립유치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충남도립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공주간호고등기술학교(현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웅진전문대학(현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대학교와 많은 초·중·고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48】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그림 Ⅲ-49】 사립영명학교



【그림 Ⅲ-50】 현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그림 Ⅲ-51】 현 공주영상정보대학

-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어져 구시가지로의 학생들의 집중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공주가 강남(현 구시가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하여 행정 및 문화, 주거 등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

으로 파악되며, 해방 이후 금강철교 설치, 도시계획 결정 등 교통발달과 신도시 형성 등으로 인해 강북(현 신관지역 신시가지)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장과 생활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Ⅲ-52】 충남도립공주사범대학(구 공주대학교)



【그림 Ⅲ-53】 현 공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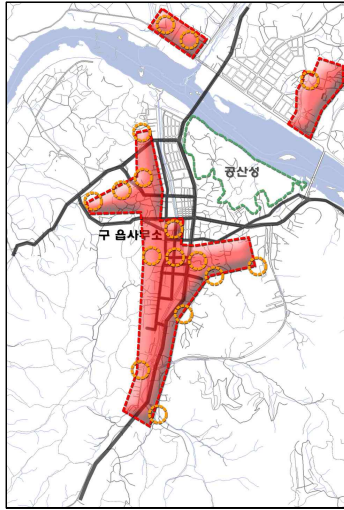
- 이상에서와 같이 교육도시로서의 공주의 입지는 백제시대 이후 이어온 화려한 문화 창조와 전파의 중심지로서의 교육시설 집중 및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 이후 개화기에 들어서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행정소재지로서의 입지성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개화기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급·별·설립·별 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충남대전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 애국심 고취 등을 통한 지역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냈으며, 우수한 교원과 학생의 배출을 통한 전국 제일의 명문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와 집중 현상에 대해서, 현재도 지역 인구의 30%에 달하는 학생수 유지와 지속적인 외지 학생 유입, 관련시설(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확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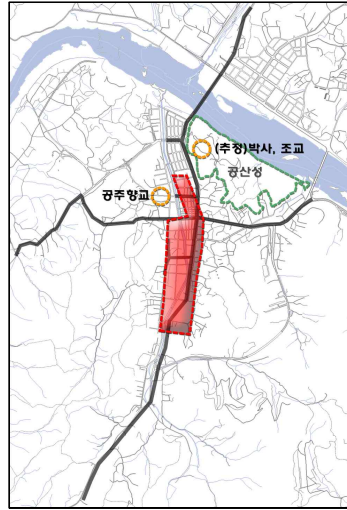
【그림 Ⅲ-54】 웅진도서관



【그림 Ⅲ-55】 청소년문화센터



【그림 III-56】 조선시대 이전



【그림 III-57】 일제강점기 이후

4) 주거공간

- 공주는 이미 오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석장리 구석기유적)을 알 수 있다. 마한시대를 거쳐 웅진백제시대에 이르면, 공주는 도읍지로 주거지가 크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도 지역 행정소재지로 웅진백제시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러한 주거지의 형성은 도시의 규모나 형태와 더불어 공주가 지닌 행정소재지, 교육도시로서의 기능과 부합되어 일반적인 자연부락 형태가 아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구석기 시대 석장리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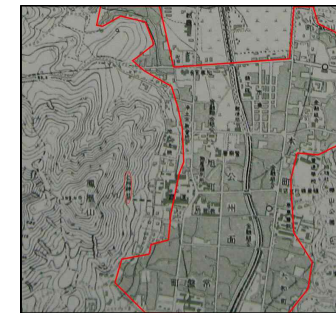
- 선사시대는 석장리 구석기유적과 같이 금강변을 따라 산발적인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주거지는 당시 공주지역이 농경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사람과 주거지가 밀집되면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B.C4세기경 철기문화가 형성되면서 마한 등 초기



마한시대 공주



웅진백제 시대 공주



일제강점기 시대 공주

-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주에 완전한 농경문화가 정착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마한시대를 거쳐 백제시대에 이르면 공주는 도읍지로 매우 발달한 주거지를 형성시키게 되었다. 왕궁이 입지하고 외부 문물 유입이 시작된 공산성과 웅진로 주변으로 자연발생적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주거지역은 “T”자형 가로(웅진로와 대로)와 연결된 세로(細路)들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자연발생적 세로(細路)와 주거지는 기존의 개방형 주거지의 형태가 아닌 밀집된 골목길 형태의 주거단지를 형성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공주의 주거지는 웅진백제시대에 비해 행정적 중요성과 인구 집중성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행정 중심지이며 교육·교통·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적지만 비교적 집단화된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당시의 주거지는 현재의 구시가지에 비해 규모는 작았을 것이며, 현재 중동 네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공주고등학교(남)와 중동성당(동), 공주시내버스터미널(북), 천주교교동교회(서)를 경계로 웅진로와 무령로 주변으로 집중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일제강점기 시대의 공주는 1918년 수립된 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해 현재의 구시가지 지역이 정비되면서 현대적 개념의 주거단지를 형성시키기 시작했을 것이며, 기존의 공간적 규모가 점차 외곽으로 확대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기존의 자연발생적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던 강북지역이 금강철교의 개통과 더불어 점차 도시적 형태로 발전하면서, 현재의 신관동 상업지역 주변으로 밀집된 주거지가 점차 현재와 같은 모습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주거지 확산과 강북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존 구시가지가 지닌 주거 중심

III.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일제강점기 시대 공주 구시가지

성과 중요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즉 주거지 확산과 강북지역 개발로 인한 구시가지와 주변 지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곽 확산보다는 구시가지로의 과밀 집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구시가지 주거지 내 주택의 변화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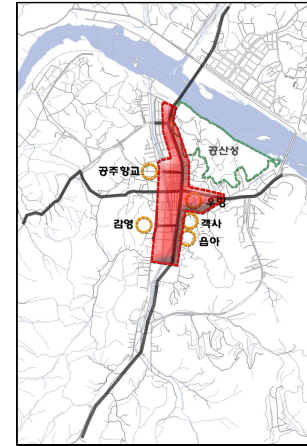
- 이는 주변 지역으로 주거지가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거주민을 위한 생활 및 교육, 문화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상류층의 구시가지 집중과 유지, 중하위층의 외곽 이전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구시가지에 집중된 교육 시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하게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구시가지내 주택의 형태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생활편의시설의 공간적 한정성과 교육도시로서의 공주라는 이미지는 도시 내·외부 학생들의 집중과 과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시가지 내, 특히 현재의 공주사대부고나 공주고등학교 인근의 주거지 내 학생이나 가족단위의 단기 거주를 위한 주택(하숙집 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단층주택을 대신하여 다층주택이 확산시키고 주택 밀집도를 향상시키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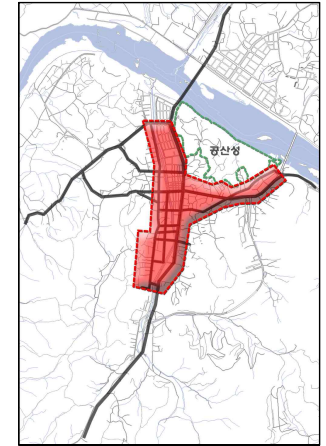
【그림 III-58】 공주 구시가지 내 하숙촌 골목

-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시가지 내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유사한 형태의 주택들이 외곽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공주의 주거지역은 점차 확산되게 되었으며, 현재의 도시 형태와 규모를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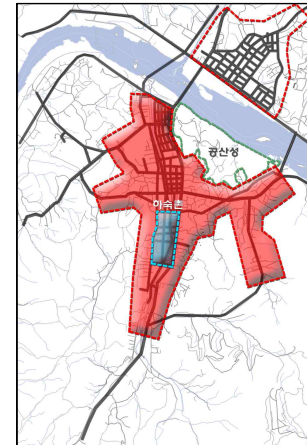
- 또한 강북 신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과 조성, 공주대학교 입지 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기존의 구시가지에 한정된 주거지를 신시가지로 확산시키고 주택의 형태에 있어서도 전통 한옥과 민가에서 현대적 주택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59】 조선시대 이전



【그림 III-60】 일제강점기 시대



【그림 III-61】 근현대시대